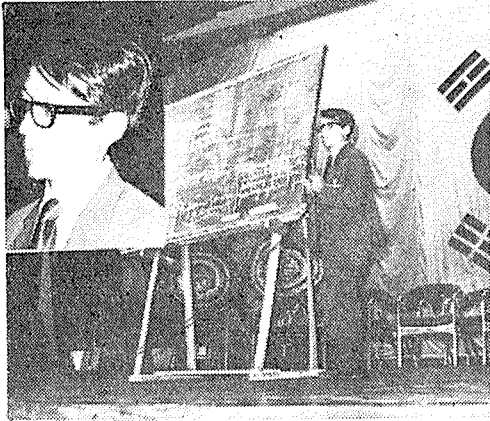


■ 主題講演 ■



1950年代에 우리가 주로 美國을 통해서 받아들인 圖書館學을 흔히 “새로운 概念의 圖書館學”이라고 한다. 재래의 圖書館職이 收藏과 整理 그리고 出納의 機能만을 가져왔던데 대하여 새로 받아들인 圖書館職은 여기에 추가해서 參考活動(reference service)의 機能이 곁들여지고, 前者들보다 오히려 後者를 강조하는 직으로 變하였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도서관의 歷史를 면밀히 살펴보면 參考活動은 도서관직에 있어 결코 새로운 機能이 아닌 것이다. 李朝와 高麗時代의 도서관직은 도서의 收藏·整理·出納보다는 오히려 參考活動에 역점을 두고 봉사하였던 것이다.

「經國大典」과 「弘文館志」를 보면, 弘文館의 職務에 대하여 「掌內府之經籍 治文翰 備顧問」(궁중의 經籍을 管掌하고 文翰을 處治(處理)하여 顧問에 應對한다)이라고 규제하고 있다. 「掌經籍」을 收藏과 出納에 비한다면 「治文翰」은 整理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備顧問”은 參考活動(reference service)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顧問”이란 원래 임금이 신하를 左右로 돌아보며 그의 의견을 묻는 데서 나온 말이다. 相談을 뜻하는 말인 것이다. 그리고 “備顧問”은 顧問에 對備한다 즉 顧問에 應對한다는 뜻이다. 또 “顧問”을 영어의 questions에 相應시킨다면, “備”는 to answer에 相當시킬 수 있다. “물음에의 應對”(to answer questions)는 곧 參考活動의 기본적인 직무이다. 質問應對(answered questions)의 機能은 專門用語로 “情報의 機能”(information function)이라고 하며, 그 應對의 모든 局面(facets)을 “情報活動”(information service)라고도 한다. 弘文館의 전신인 集賢殿과 후신인 奎章閣도 그 機能은 같다. 모두가 王과 朝廷에서의 물음(調查研究의 依賴)에 대해 성실한 應對 곧 情報活動을 해 주는데

李朝文獻職의

職能과 使命

李 載 喆

(延世大學校 副教授·圖書館學)

그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情報活動의 실제 事例는 「朝鮮王朝實錄」에서 수다히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몇개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世宗實錄의 世宗12年12月壬辰條에, 大小人員의 住宅이 매우 程度에 어긋나게 建立됨을 보고 이에 대한 措置를 左右와 강구하기 위하여 集賢殿으로 하여금 古制를 調查하여 報告케 한 적이 있다. 또 (2) 世宗12年12月癸巳條에 古代言 金宗瑞가 각 관청에서의 廢弛함이 不公正하다는 실례를 들어 그 폐단의 시정을 啓하자, 諸代言이 그 問題는 集賢殿에 依賴하여 考功之法을 調査해 올릴도록 한 연후에 論議하자고 하였다. (3) 世宗15年7月癸酉條에, 穿川의 大略를 風水地理 관계로 막아야 한다는 崔揚善측과 막지 않아도 된다는 李揚達·高仲安측과가 의견이 대립되자, 王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集賢殿으로 하여금 여러 地理書를 參考하여 文獻의 由로 그 시비를 分辨하여 보고케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集賢殿은 洞諒의에 대하여 文獻의 出處를 조목조목 들어가며 약 二千字(한글로 번역하면 약 七千字해당)에 달하는 자세한 回信을 한 적이 있다.

물음에 主題의 제한이 있을 수 없다. 中國의 古制와 風水說에 국한되지 않고 무슨 問題이든 文獻의 고증과 確認이 必要한 것은 모두 集賢殿에 照會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당시의 集賢殿·弘文館·奎章閣은 당시의 엄연한 “文獻센터” 즉 “情報센터”였다.

이들 圖書之府의 중요한 機能의 하나였던 “經筵”은, 도서관학적으로 풀이하면, 參考活動중 教育的 機能(instructional function)에 속한다 하겠다. “書筵”·“典試”등도 이 機能의 범주에 들어간다.

“言官”으로서의 機能은 “advisory function”에 해당되며, “制撰”·“編纂”·“註釋解”·“翻譯(診解)”·“謄書”·“校正”·“印刊”의 機能은, 약간 무리이긴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書誌의 機能”(bibliographical function)

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마지막에 든 도서관에서의 편찬·번역·등서·교정·인간 등의 機能은 “니네베(Nineveh)도서관”을 비롯한 古代 바빌로니아·앗시리아 도서관들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비롯한 古代 이집트 도서관들과 中世 서양의 寺院도서관들의 공통된 기능이었다. 이 機能은 近世에 와서 점차 사라져 갔다가 최근에 일어난 情報센터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물론, 參考活動의 機能이 時代와 地域과 또 그 도서관의 種類에 따라 그 性格과 形態와 內容에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은 인정해야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集賢殿·弘文館·奎章閣은 “學問研究所”임과 동시에 “圖書之府(도서관)”였으며 “圖書之府”임과 동시에 “學問研究所”였다. 典籍을 뜻하는 “文”과, 賢者를 가르키는 “獻”이 복합되어 “文獻”이란 말을 生成하듯이, “圖書之府”는 圖書와 賢者가 複合내지 合一되어 “文必由賢 賢必由文”의 文獻센터로서 形成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李朝末期이전의 圖書館 官員은 文士와 學者의 대우를 받으며, 그職이 “淸職” 또는 “仙官”이라 불리워 가장 高貴하고 名譽로운 職으로

서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에 올랐던 것이다. 새로운 概念의 도서관학에서 말하는 文獻職의 專門職 운동은 어느 의미에서, 그 黃金期에 누렸던 그 職能과 權能과 名譽를 되찾기 위한 일종의 文獻中興 내지 文藝復興 운동이다. 이 文獻中興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技術的·管理的 職務에 머물러 있는 현상태를 하루속히 벗어나서 顧客이 直面한 問題들 같이 講論·論思하며, 그들을 敎導 내지 補佐하여 迅速히 그들의 問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에 하루속히 우리의 學識과 實力을 끌어 올려야 한다.

美國의 科學소설가 하인라인(Heinlein)은 그의 한 소설에서 한 주인공의 입을 빌어 “앞으로 세상사가 잘 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도서관인(librarian)이 그들의 사명을 어떻게 잘 수행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情報時代의 主人公으로서, 責任感과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분발하여야 하겠다. “淸職”과 “仙官”의 호칭이 다시 우리 文獻職에게 붙여질 시대가 目前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23面에서 계속>

인큐내블러(Incunabulum, Incunabule, Incunabula [PL]) (도협월보 '71. 6. p. 26)

라틴語의 複數 Cunabla, Cradle에서 나온 말로서 15世紀時代에 印刷된 圖書를 가리킨다. 現存하는 Incunable은 約40,000種12,000,000冊 程度가 된다고 한다. 初期刊本, 搖籃期本

傳奇(Romance) (도협월보 '71. 6. p. 27)

1. 逸事, 奇談 등으로 기이한 사실을 취재한 소설이나 희곡의 總稱이다. 中國元代의 報劇, 雜體의 小說, 또는 文獻, 歐洲 中世紀의 騎士小說, 架空小說, 長篇小說 등을 가리킨다. 이것들은 大概 테마가 奇拔한 怪人的 行爲를 그린 小說이다.

2. 기이한 일을 세상에 알리는 것.

粘土板文書 (도협월보 '71. 1. p. 19)

→土版

土版(用語集 p. 128)

良質의 粘土板에다 楔形文字를 刻하여 乾燥시킨 것이다.

<要 追記 用語>

白文(用語集 p. 50)

科學의 試卷으로서 官印이 찍히지 아니한 것이다.

私家板(用語集 p. 60)

著作者 또는 그의 子孫이 經費를 負擔해서 出版한 書籍

<要 削除 用語>

奇本(도협월보 '71. 6. p. 24)

尾紙(도협월보 '71. 6. p. 25)

1. Margin과 같음

2. 간기와 같음. 圖書館用語集 1966에 End paper간기로 수록 됨.

付刻本(도협월보 '71. 6. p. 25)

粉本 監本은 圖書館用語集 1966. p. 20에 記錄되어 있어 不必要.

三方銀(도협월보 '71. 6. p. 26)

圖書館用語集 1966. p. 89에 銀箱斷面으로 收錄되어 있음으로 不必要.

三方金(Gilt Edged, Withe Gilt Edges) (도협월보 '71. 6. p. 25)

圖書館用語集 1966, p. 17에 金箱斷面으로 收錄되어 있음으로 不必要.

蠟板圖書(Wax Tablet) (도협월보 '71. 6. p. 24)

合刻本(合刻本)

圖書館用語集 1966, p. 139에 合刻書가 있음으로 不必要.